

지자체 차원의 관광교류 정책 및 방안

발표자
민웅기 / 목원대학교

- 국내 관광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시아 관광목적지로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경제 메커니즘은 무엇인가?
- 관광교류 과정에서 운영되는 관광지리자원의 범주 및 그들 간 관계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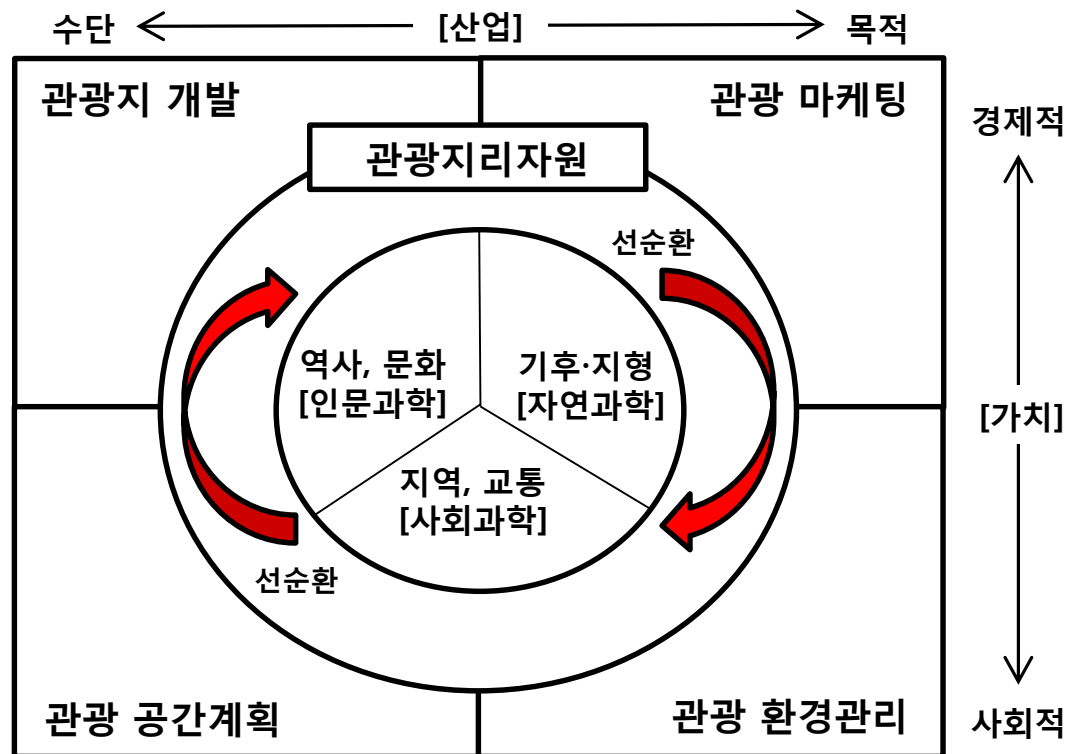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관광교류과정에서 운영되는 관광지리자원의 범주

- **지역(도시)마케팅의 필요성: 충청남도가 지닌 관광분야의 지역 경쟁력은 무엇인가?**
 - 누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가? (지자체, 기업, 시민사회 등)
 - 무엇을 하는가? (관광지개발, 도시재생, 도시공간 판매 등)
 - 왜 하는가? (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?)
 - 관광목적지의 자원 구분: 기본적(primary) 관광자원
2차적(secondary) 관광자원
3차적(tertiary) 관광자원
- ‘충청남도의 관광목적지에 내재된 관광지리자원의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?’ 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요구됨

● 워터파크



- 2014년 세계 20대 워터파크 연간 입장객 수는 2760만 명으로 2013년 2680만 명 대비 2.8% 성장
- 전 세계 20대 워터파크 중 비발디파크 오션월드(5위), 에버랜드 캐러비언 베이(7위), **리솜 스파캐슬(11위)**, 웅진플레이도시 워터도시(20위) 등. 충청남도의 리솜 스파캐슬이 주요 순위 차지

● 박물관 & 전시관



- 한국 박물관 중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의 방문객수는 각각 16위, 20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 평균 성장률 1.6%를 훨씬 상회하는 15.9%, 20.9%의 성장률 기록
- 한국-중국-일본 및 동아시아에 걸쳐 함께 기록되어 각국의 사회구성원들이 공유·공감할 수 있는 역사자원의 관광자원화 과정 필요
- 관광객 스스로가 그것의 고유성(authenticity)을 느낄 수 있는 '예술관람형-교육형-참여형' 관광상품의 활성화 기대: 대안관광의 전형

● 아웃도어 여가-레크리에이션



- 힐링(healing) 컨셉과 관련한 활동형 스포츠 관광존을 활성화하기 위한 캠핑장, 도보여행로 등의 공간구획 및 운영·관리 필요(예: 내포문화숲길 등)
: 지자체 간 협력 필요
- 지역 고용창출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수익구조 개발모형 필요
- 친환경 자원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대안적 관광자원 설계를 위한 시설 인프라에 대한 투자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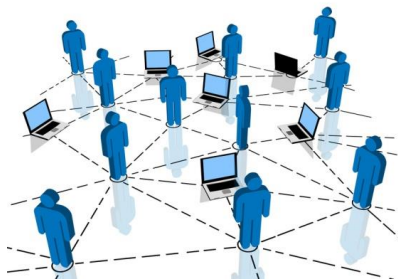
● 교통 네트워크



- 장소이동에 근간을 둔 관광자원 간 교통 네트워킹의 주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
- 특히 대중교통과의 연계 체계가 갖추어져야 함
- 철도 및 공항 주변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소비공간 마련이 필요함

-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추구하는 공통 가치의 구현을 통한 관광콘텐츠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?
 - 사회적 경제(Social Economy)의 구현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은 시·공간의 공유를 가능하게 함
 - : 글로칼리제이션(glocalization)
 - 지역 내 공유가치창출(CSV: Creating Shared Value) 구조에 의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목적의 동시적 실현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
 - : 소외지역 및 계층 지원, 환경가치의 인식, 지역사회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, 사회기반시설 및 간접자본 확충
 - : 지역중심의 대안적 관광산업 개발을 통한 공정관광과의 연계

- **공유경제(Sharing Economy)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및 충청남도 관광교류정책의 시사점**
 1. 관광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, 콘텐츠 → ICT 하드웨어를 이용한 협력적 소비(collaborative consumption system) 구축 및 신뢰(trust)에 기반한 자체 모니터링 및 시민단체의 활동 → 개인관광객 타겟팅(targeting)
 2. 대중 관광교통체계 구축 → 충남 내 주요 관광목적지 간 대중교통 미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. 공항, 철도, 버스 등 환승시스템 등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됨 → 지역 내 카 셰어링, 콜버스 등의 활용을 통한 관광지 이동 편의 제공



- **공유경제(Sharing Economy)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충청남도 관광교류정책의 시사점**
3. 지역 내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 효과 → 관광 기반 사회적 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으로의 적극적 적용 → 지역사회 기반시설 이용 지원(하우징 셰어링 등)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.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내생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 할 수 있음
 4. 제품서비스 시스템의 재분배 시장으로의 적용 → 관광객 및 지역사회 마켓 플레이스, 교환소 등의 운영 → 친환경 관광활동 독려를 통한 자본 순환의 효율성과 형평적 분배구조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는 지역 연계 체계구성



- 충청남도 지역 내 공유 관광자원 간 네트워크 상에서의 허브(Hub) 역할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?
- 태안 지역 내 관광인프라 간 네트워크 방안을 마련하여 시너지효과 극대화
- 하나의 분명한 컨셉이 구현된 도심 브랜드 가치 창출 및 이를 통한 환경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(대중 교통 및 ICT기반 관광정보애플리케이션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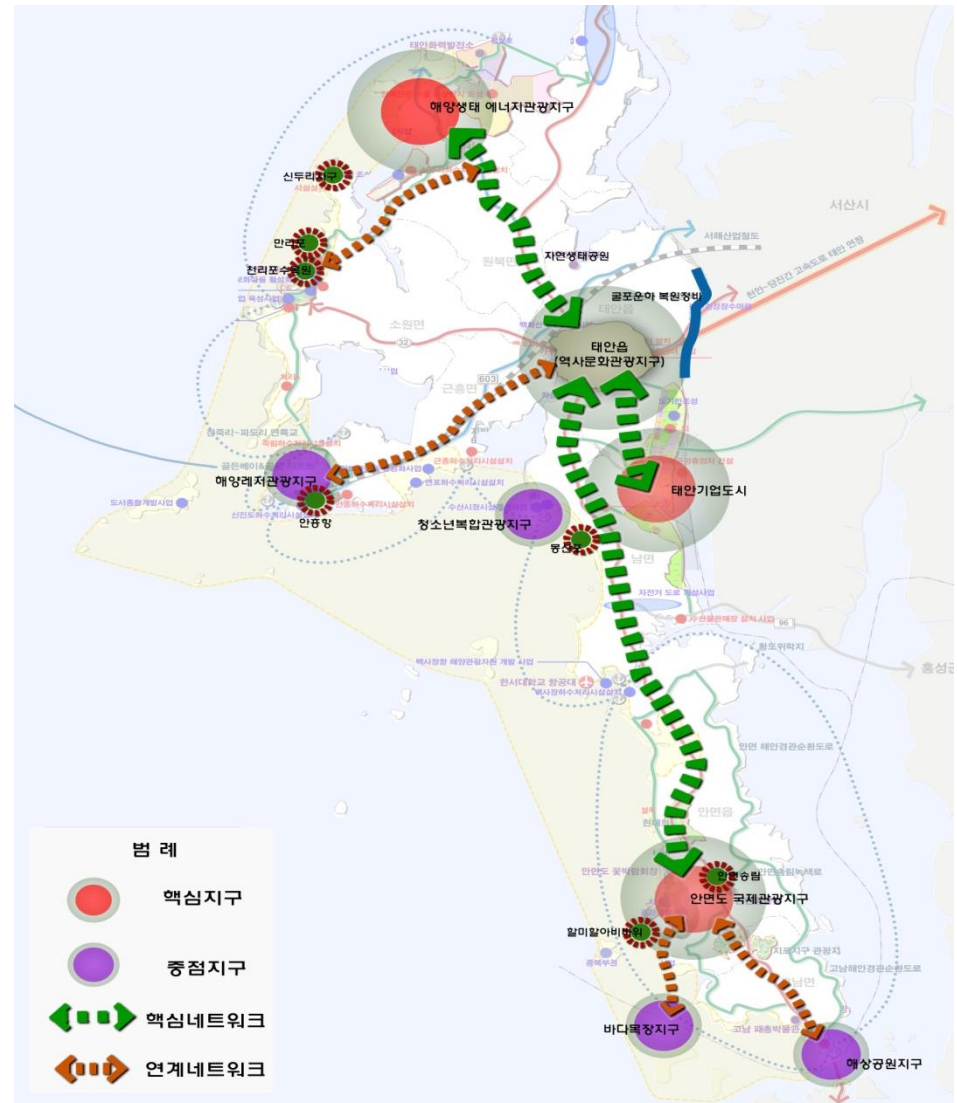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구도심인 태안읍과 주변관광자원 연계방안의 사례(안)

● 동북아시아 지역 내 공유경제체계의 전략적 제휴는 어떤 정책적 방안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? (하드웨어적 측면)



- 지역 내 보유 시설, 장비, 토지 등의 공유(국가-국가 간, 국가-기업 간, 기업-기업 간, 개인-기업 간, 개인-개인 간)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?
- 지역 내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, 공유할 것인가?
- 지역 내 현재의 유희자원과 다른 지역의 유희자원을 어떻게 연계하여 그 가치를 직접 교환할 것인가?

● 동북아시아 지역 내 공유경제체계의 전략적 제휴는 어떤 정책적 방안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? [소프트웨어적 측면]



- 동북아시아 각 국가들이 그 가치와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? (예: 고대국가, 학자의 유학, 해양 무역, 가상의 문화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등)
- 이문화[異文化] 간 ‘보편성’ 과 ‘고유성’ 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? (예: 보편성 - 기후변화, 불교문화, 쇼핑몰 등 / 고유성 - 보물선, 재래시장, 먹거리 등)

● 충청남도-동북아시아 문화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



- 동북아시아 도시들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충청남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도시브랜딩 전략이 요구됨
: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비전추진조직과 브랜드 위원회의 구성 및 추진
- 충청남도 지역 전체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총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위상 강화 및 공유경제시스템으로의 조직 전환
- 충청남도 지자체, 기업,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관광 기반 공유경제시스템 구축 모델 마련

● 충청남도-동북아시아 문화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



- 지역 경제 내부 활성화 및 동북아지역 간 교환관계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지원 조직 구축 및 육성기금조성
- 금융협동조합 등을 통한 안정적 자금운영조직 구축 및 상근 조직구성원의 확대를 통한 관광기반 지역 비즈니스 지원
- 지역 내 관광인프라 구축의 선행과정을 통해 외부 자본의 적극적 투자 유치 도모
- 정보통신기술, 복지, 관광, 도시공학 등과 관련한 융합기술교육 지원 조직의 상설화 및 축제 개최(예: 서울DMC컬쳐오픈(Seoul DMC Culture Open) 등의 미디어아트축제,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(Ars Electronica Center) 등의 융합기술전시연구센터 건립, 관광관련 애플리케이션 대회 등)

감사합니다